

## 농촌진흥청-임실군 협약 결실...저지종 송아지 첫 탄생

- 2023년 업무협약 이후 저지종 생축·수정란 단계적 보급
- 올해 4월 3개 농가서 총 3마리 출생
- 국립축산과학원장-임실군수 현장 찾아 상황 점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임실군에 보급한 저지종 수정란 가운데 농가 3곳에서 송아지 총 3마리가 태어났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과 임실군이 2023년 12월에 체결한 업무협약 이후 추진하고 있는 ‘저지종 사육 기반 구축 사업’ 첫 결실이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임실군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저지종 생축과 수정란을 단계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내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산업화 기틀 조성에 힘을 쓸 계획이다.

그동안 임실군에 수정란 생산용 저지종 생축 11마리를 보급했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수정란 30개씩 총 60개를 공급했다. 아울러 지난 3월부터 총 11마리의 수정란 이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수정란 공급과 함께 현장 기술지원도 강화해 전문가 농가 방문, 유선 상담 등을 통해 젖소 사양관리와 번식 관리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과 심민 임실군수는 4월 27일 해당 농가를 방문해 저지종 사육과 수정란 관리 현황을 살피고, 건의 사항을 들었다. 또한, 저지종 도입이 지역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유제품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협력하기로 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저지종 보급 사업이 눈에 띄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임실엔(N)치즈 등 지역 유제품 산업과 연계해 임실군 낙농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 “이번 저지종 송아지 첫 탄생을 기점으로 추가 출생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저지종 사육 기반을 계속 확대해 지역 낙농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저지종 젖소는 우유 내 지방과 단백질 함량이 높아 치즈와 버터 등 유가공품 생산에 유리한 품종으로 알려져 있다. 임실군은 저지종 도입을 통해 ‘임실엔(N)치즈’ 품질 고급화와 지역 유제품 산업 경쟁력을 높ی겠다는 구상이다.

붙임1. 연도별 임실군 저지종 생축 및 수정란 보급 결과

붙임2. 현장 방문 개요 및 일정표

담당 부서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책임자	과 장	김상범 (041-580-3380)
		담당자	연구사	이지환 (041-580-3392)
	임실군 관광치즈과 낙농자원팀	책임자	팀 장	오승준 (063-640-2686)
		담당자	주무관	최엄지 (063-640-2688)
				

**붙임 1**

**연도별 임실군 저지종 생축 및 수정란 보급 결과**

□ 연도별 임실군 저지종 생축 및 수정란 보급 결과

연도	날짜	생축 보급	수정란 보급	수정란이식 지원	비고
2024	6월		15개		
2024	11월	1두	15개		
2025	5월	5두			
2025	9월		10개		
2025	10월	1두			* 품평회 수상축
2025	11월		20개		
2026	2월	4두			
2026	3월			8두	
2026	4월			3두	
누계		11두	60개	11두	

□ 저지종 젖소 참고사진



**붙임 2**

**현장 방문 개요 및 일정표**

□ 일 시: 2026. 4. 27.(월), 14:00~14:30

□ 장 소: 임실군 임실읍 감천로 141(감성목장)

□ 내 용: 축산원 보급 저지종 수정란 활용 첫 출생 성과 농가 방문

□ 세부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13:00~13:50	50	이동(전주 → 임실) * 43.9km	* 감성목장
14:00~14:30	30	◦ 임실군 감성목장 현장 방문	* 단체 사진(현수막) * 원장, 임실군수, 낙농과장, 임 실치즈연구소장, 농가 대표 * 보급성과 사진(송아지) * 원장, 임실군수, 농가 대표 * 농가대표 간담회(10분) * 원장, 임실군수, 농가 대표
14:30~15:20	50	이동(임실 → 전주) * 43.9km	